

구례군, 천년역사지리산남악제례 봉행

삼국시대부터 나라 평화·백성 안정·풍년 기원 국태민안·코로나19 종식 기원하며 제례만 봉행

구례군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지리산남악제례를 절기상 곡우(穀雨)인 20일 오전 10시 화엄사 경내 남악사에서 봉행했다.

남악제례는 삼국시대부터 나라의 평화와 백성의 안정 및 풍년을 기원하며 나라의 주도로 남악(지리산)산신에게 올리던 제사이며, 천여 년이 넘도록 진행되어 온 우리 민족 고유의 제례행사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남악제례를 전면 취소했다. 올해는 국태민안과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30명의 제관들과 관계자만 참석하여 제례를 봉행했다.

구례군은 지리산남악제의 전통계승을 위해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학술대회를 통해 전문가의 고증을 거쳤다. 제관들의 제복은 조선 숙종대를 기준으로 복식을 재현했으며, 제기와

제례음식 등은 국조오례의 등 국가의 제 기록을 근거로 고증하여 복원했다.

김한섭 지리산남악제례보존회장은 "조상들이 국태민안을 위해 제를 올렸던 정신을 계승하여 코로나19 종식과 군민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제례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조현관으로 제례에 참석한 김순호 구례군수는 "장기적인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께서 희망을 가지기를 기원했다"며 "금년에 시행되는 남악사 옛터 발굴사업과 연계하여 남악제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악제례는 신라시대부터 지내온 산신제에 기원을 둔 문화예술 축제다. 옛날에는 토함산·계룡산·지리산·태백산·팔공산을 '오악(五岳)'이라 했고, 그중 지리산을 '남악(南岳)'이라 했는



데 이로부터 '남악제(南岳祭)'라는 명칭이 유래했다.

신라시대에는 지리산 천왕봉에서, 고려시대에는 노고단에서 제를 지냈다. 조선시대에는 노고단 남쪽 현재의 광의면 온당리에 제단을 세우고 제례를 지냈으나 1908년 제단이 폐쇄됐다. 광복 후 화엄사 일주문 앞에서 제를 올렸으며, 1969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현 위치에 남악사(南岳祠,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36호)를 새로 건립

화순군, 상수도 스마트 관리 인프라 구축 내년까지 70억 투입 수도물 공급 전 과정에 ICT 기술 접목

화순군이 2022년까지 70억 원(국비 49억)을 들여 수도물 공급 전체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은 지난 3월 실시계획용역에 착수하고 실시간 수압계 구매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 2월 붉은 수도물 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수도시설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물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은 애초 2022년부터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적극적 국비 확보 활동으로 국비를 확보해 사업 시기를 1년 앞당기게 됐다.

군은 구축 사업을 통해 배수관로 주요 지점에 오염물질 자동 배출, 관말까지 충분한 소독능력 확보, 관로 이물질 제거, 적수 사고

제로(Zero)를 위한 관 내부 이물질 세척, 관로의 정확한 위치 파악, 실시간 압력관리, 실시간 사용량 분석, 사고 발생에 따른 오염 물질 거동 예측 등 최신 스마트 신기술을 접목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애초 환경부 기본계획에는 화순군 사업비가 39억 원으로 제시되었으나, 군 실정에 부합한 추가 사업 확보를 위해 환경부, 기본계획 관계자를 수시로 방문 설명·설득해 31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상수도 재정 취약성으로 관로 노후, 유지관리 투자 미흡 등 적수 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남아 있었다"며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호우피해 저수지 준설 완료...농업용수 확보

지난해 집중호우로 저수용량 부족 우려...3억 원 들여 28개 저수지 응급 준설



담양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군 관리 저수지 28개소에 대하여 준설을 완료하고 용수확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저수지 내 토사유입으로 저수용량의 부족 및 수문막힘 등을 우려해 최형식 군수는 2021년도 준설사업비 3억 원 반영을 특별 지시했으며, 군 관리 저수지 28개소에 대하여 응급준설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퇴적량이 커 응급준설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농에 지장이 있을 것으

로 우려되는 저수지 6개소는 추가로 예비비 6억 원을 긴급 투입해 퇴적토 7만㎡(15톤 덤프트럭 7,368대)를 준설 완료함으로써 영농기 물 부족 걱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군은 군 관리 70개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관리 47개소 등 총 117개소의 저수지를 통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현 저수율 73.7%(74,713톤)으로 작년 저수율 대비 73%와 유사한 저수율을 확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주민의견을 반영해 연차적으로 준설계획을 수립, 지역 영농인이 물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경계분쟁 해소·토지이용가치 ↑

곡성군이 올해 삼기 원등지구(793필지, 24만㎡)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입면 종방지구(554필지, 29만㎡), 곡성 대평지구(932필지, 36만㎡), 오곡 덕산지구(387필지, 29만㎡), 죽곡 당동지구(694필지, 59만㎡), 곡성 구원지구(755필지, 43만㎡)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토지 소유자와 이용자들은 맹지 해소, 건축물 저축 해소 등 현실경

계 정비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곡성 신리지구(265필지, 19만㎡), 곡성 신기지구(809필지, 32만㎡), 죽곡 용정지구(242필지, 10만㎡)는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사업지구로는 삼기 원등지구 선정됐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무성종합건설을 측량수행자로 선정해놓은 상태다. 이들은 삼기 원등지구에 대해 4월 말부터 5월 까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곡성=양해영 기자

장성군, '금연지도원' 활동 시작

장성군이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장성군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건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금연지도원들이 금연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시설은 학교, 식품접객업

소, 공중이용시설, 버스 및 택시정류소, 공원 등으로 금연구역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위 등에 대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사안에 따라 현지 시정, 행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기동취재본부

나주시, 제5회 백호 임제 어린이 글짓기 대회 개최

나주시 백호문학관은 초등학생들의 문학 창작 능력 함양을 위한 '제5회 백호 임제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백호문학관은 오는 30일까지 이번 대회 작품을 공모한다.

대회 주제는 오는 6월 1일 금성관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11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나라를 위하

는 마음'으로 선정했다.

'의병 선조에게 보내는 편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면?', '나주 의병 선조들에 대한 고마움' 등 구국에 앞장선 선조들에 대한 평

소 생각과 감정을 글과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관내·외 초등학생은 백호문학관 누리집에 게시된 참가 신청서와 작품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백호문학관(나주시 다시면 회진길 8)로 제출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